

디스플레이 부품 국산화를 제고

구미에 핵심부품 지원센터 설립 ... 국산화율 30%에서 70%로

구미에 디스플레이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들어선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2011년까지 국비 45억원과 지방비 70억원 등 115억원을 들여 <디스플레이 핵심부품 국산화 지원센터>를 건립키로 했다고 1월14일 발표했다.

2008년 11월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건립이 확정됐으며, 구미국가산업 4단지의 디지털전자정보집적단지 7400㎡ 부지에 연면적 4500여㎡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구미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LG나 삼성 계열의 전자기업은 그동안 부품의 국산화율이 높지 않아 수입제품에 의존해 왔다.

디스플레이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은 현재 30% 선에 머물고 있어 수출이나 내수 판매가 증가해도 실익이 해외기업에 건너가는 경우가 많았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디스플레이 핵심부품 국산화율을 2012년까지 70%로 끌어올릴 계획으로 국산화 지원센터에 30억원을 투입해 20여종의 장비를 갖추고 석·박사 전문 인력 9명을 충원할 예정이며, 관련기업 20곳을 유치할 방침이다.

국산화 지원센터는 핵심부품의 국산화 로드맵 제시함으로써 핵심부품 소재의 정보은행 등의 기능을 수행해 나갈 생각이다.

전자정보기술원 관계자는 “디스플레이 핵심부품 소재의 국산화를 목표로 장비, 인력, 정보, 설비 등을 집적함으로써 신 성장동력 창출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보며 특히, 터치패널이나 기능성 필름, 전극재료 분야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1/14>